

■ 박근종 칼럼

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폭 상승, 획기적 공급 대책 급선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둘째 주(1월 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 기조로 전주 0.18% 대비 0.2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북 14개 구는 0.17% 올랐는데, 중구(0.36%)는 신당·황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32%)는 하왕십리·옥수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9%)는 창전·성산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3%)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 구는 0.25% 올랐는데, 동작구(0.36%)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0%)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30%)는 풍납·기락동 재건축 주진단지 위주로, 강동구(0.30%)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공립박물관 18곳 우수 인증…인증률 90%로 전국 최고 수준

서울시 관내 공립박물관 18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시 관내 공립박물관 18곳이 우수 인증을 획득해 인증률 9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인증률 67.5%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로, 서울시 박물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문화 서비스의 수준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제도 시행 이후 전국 평균 인증률은 ▲2017년 64.1% ▲2019년 68.9% ▲2022년 52.4% ▲2025년 67.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한성백제박물관(송파구), 서울상상나라(광진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서대문구), 허준박물관(강서구) 등 5개소는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4회 연속 인증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운영 역량과 우수한 공공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개관 후 3년이 경과해 이번에 첫 평가인증 대상이 된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종로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중구), 송파책박물관(송파구) 등 5개소도 모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3회 연속 인증기관은 5개관(청계천박물관, 돌리뮤지엄, 서울교육

무엇보다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연간 상승률 8.98%로 집계되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KB 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이전 최고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의 8.03%였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 역시 7.07%, 5.26%로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권기인 2006년 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시쳇말로 날북 소득 격차가 29배라고 하는데, 날남 부동산 자산 빼고 격차는 무려 130배란 통계도 있다. 물론 고삐 풀린 집값 상승은 결코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육지기 등의 후유증이 누적된 결과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공급 대책을 냈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에 신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시장과 달리 전체 주택시장은 지역 간 극심한 '양극화(兩極化) | Polarization)' 양상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이 오른 곳은 6곳에 그친데 반면 11곳은 하락했다. 특히 대구

집값은 3%나 떨어졌다.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